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유아의 공격성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유지은¹, 김성재^{2*}, 황지애³

¹서울한영대학교 아동학과, ²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과, ³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The Effect of Smartphone Usage Habits of Mothers on Aggress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Young Children

Ji-Eun Yoo¹, Sung-Jae Kim^{2*}, Ji-Ae Hwang³

¹Dept. of Children Education, Seoul Hanyoung University

²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uncheon Jeil College

³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유아의 공격성과 정서지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전북 소재, 만 3~5세 유아가 스마트폰 사용 경험이 있는 어머니 총 275부의 설문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과 유아의 공격성 및 정서지능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의 일반적 경향은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하위요인별로는 '내성 및 몰입'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유아 공격성의 일반적 경향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고, 하위요인별로는 '지위획득 공격성'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유아 정서지능의 일반적 경향에서는 대체로 보통수준의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둘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과 유아의 공격성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과 유아 공격성은 정적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유아 정서지능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습관 하위요인 중 가상세계지향과 정서지능 하위요인 중 자기정서 인식 및 표현은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 및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아의 공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 및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mothers' smartphone usage habits on young children's aggress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For this purpose, a total of 275 questionnaires from mothers in Jeonbuk Province with 3~5 year old young children, who had experiences in using smartphones, were analyz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n analysis of the general trend of mother's smartphone usage habits showed that young children's aggress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according to the general trend of mother's smartphone usage habits had a generally low rate and 'the tolerance and flow' had a high score among its sub-factors. The general trend of young children's aggression also showed a generally low rate, and 'status acquired aggression' had a high score among its sub-factors. The general trend of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showed a moderate level, and a high score was observed in 'mother relation' among its sub-factors. Second,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smartphone usage habits, and young children's aggress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showed that mother's smartphone usage habit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young children's aggression while it did not correlate with the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other hand, a nega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the virtual world orientation among the sub-factors of smartphone usage habits and the self-emotion awareness and expression among the sub-factors of emotional intelligence. Third,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mother's smartphone usage habits on children's aggression showed that all of mother's smartphone usage habits and its sub-factors had a negative effect on children's aggression. Fourth,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mother's smartphone usage habits on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showed that none of mother's smartphone usage habits or its sub-factors had a significant effect.

Keywords : Mother, Smartphone, Usage Habits, Emotional Intelligence, Aggression

*Corresponding Author : Sung-Jae Kim(Suncheon Jeil College)

Tel: +82-61-740-1344 email: jackie02@hanmail.net

Received November 22, 2016

Revised (1st December 6, 2016, 2nd December 8, 2016)

Accepted January 6, 2017

Published January 31,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호모 파베르(Homo Faber)란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인간은 유·무형의 도구를 사용하고 제작하면서 다른 종과는, 다른 존재가치를 부여받는다. 특히, 최근에는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며 빅데이터, 증강현실 등의 용어가 회자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간만의 도구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중,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필수적인 도구로 스마트폰이 꼽히고 있다[1]. 스마트폰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열어가는 대표적인 도구로써, 다른 스마트기기에 비해 휴대성, 즉시성, 편리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어[2] 현대인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 발표에 의하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5,7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대상이 점차 어린 연령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3]. [4]의 조사에 의하면,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하는 평균연령이 2.27살로 파악되기도 하였고,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2014 영유아 스마트폰 노출실태 보고대책’은 서울·경기 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10명중 4명이 주 3회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음이 보고되기도 하였다[5].

이처럼, 스마트폰의 사용이 어린 연령까지 확대되며 일상화되어가는 가운데, ‘유아스마트폰 증후군’이란 신종증후군까지 등장하며[6] 영유아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인적 인간성장 발달의 민감한 시기인 유아기 때 스마트폰의 사용은 눈충혈, 시력저하 등 유아신체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7], 유아의 자기조절력 상실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부적응 문제나 일탈행동을 일으키고[8] 공격성, 불안, 주의집중문제, 대인관계문제[9]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한번 본 영상이 각인되어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똑같은 영상만 반복해서 보려는 각인효과나 자극적인 매체에만 흥미를 가지는 팝콘브레인의 문제 등 두뇌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침이 제기되고 있다[10].

최근,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문제점 중에 공격성이란 개념이 회자되고 있다. 공격성은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공격적인 행동관련 문제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다양한 사회·심리적 문제를 초래한다[11]. 공격성향을

지닌 채 성장하는 유아는 점점 대인관계를 힘들어하며 폭력적이게 되고, 집단에 속하지 못하는 성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12]. 이에 유아기의 사회적 부적응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일찍 발견하여 진단하고 개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공격성이란 개념에 연구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13]. 공격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어떤 대상에 대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가해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가치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상처를 입히는 행위나 사고 및 정서를 포함한 행동으로 정의되고 있다[14]. 유아 공격성의 경우에는 유아의 언어적, 인지적 발달특성으로 인해 또래와 갈등을 일으키기 쉽고, 갈등해결을 위해 유아가 또래친구에게 신체적으로 대인공격 및 언어공격을 하는 것으로[15] 명료화된다. 영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는 영유아의 성별이나 기질 등 개인적 변인들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보육기간 및 보육시간 등의 환경적 변인이 있고 [16,17], 최근에는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또한 공격성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18]은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시작시기가 24개월 이하로 빠른 시기에 시작하는 영유아들의 공격성이 높으며, 스마트폰을 매일 사용할수록 영유아들이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제시한다. [19]의 연구에서도 스마트폰을 41분 이상 하는 유아가 공격행동을 가장 많이 나타내었음을 언급한다. 한편, 유아의 공격성이 나타나는 주요 변인으로 유아의 낮은 정서지능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은 정서지능이 낮은 유아는 공격성 등의 외면화 장애를 보였음을 언급하고, [21]은 유아의 기질이나 인지능력보다 정서지능이 유아의 공격성에 더 영향력이 크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실제로 [22]의 연구에서 정서지능이 높은 유아들은 비공격적이고, 정서지능이 낮은 유아일수록 불안 및 우울해 하는 경향이 있음을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서지능에 관해 [23]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점검하고 그것들의 차이를 변별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정서정보를 이용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정의 내린다. 이처럼 인간행동의 모든 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서지능을 높이기 위해 유아기부터 다양한 정서적 경험이 제공되어야 한다[24].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의 연령 하향화로 인해 유아의 정서지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25,26]. 스마트폰의 사용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과 정서지능, 공격성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들을 보면,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특성,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습관 등 연구대상을 유아로 한정하여 설계된 경우가 대다수이다[26,27,28]. [29]는 인간발달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하며, 유아발달 또한 환경과 사회적 영향의 산물임을 강조한다. 그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고려하면, 유아의 정서지능과 공격성은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유아들의 발달특성상 유아 스스로 스마트폰을 소지하며 사용할 수 없기에 유아와 제일 가까운 양육자인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에 따라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여부가 결정되어 질 것임을 감안한다면[3], 어머니들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라는 환경적 변인에 따라 유아의 정서지능과 공격성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일부 선행연구에서[14,30]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및 습관과 유아의 공격성 및 정서지능과의 관련성을 검증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유아의 공격성 및 정서지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에 따라 유아의 공격성과 정서지능에 관해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한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란 개념을 ‘성인 인터넷 중독 자기보고용 척도’[31]를 스마트폰 사용습관 과몰입으로 재구성한 [3]의 연구결과에 따라, 가상세계지향, 긍정적 기대, 내성 및 몰입, 스마트폰 자기인식 등의 하위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 하위요인별 내용을 살펴보면, 가상세계지향이란 현실에서도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처럼 해보고 싶고, 스마트폰을 사용 못하면 궁금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며, 긍정적 기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를, 내성 및 몰입은 해야 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스마트폰부터 하고, 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오랜 시간하는 상태를, 스마트폰 자기인식은 지나치게 스마트폰에 몰두해 있는 자신을 한심하게 느끼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은 4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반복적인 행동적 특징으로 정의내릴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유아의 공격성과 정서지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교육과 스마트폰 사용 예방프로그램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함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과 유아의 공격성 및 정서지능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에 따른 유아의 공격성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4.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스마트폰 사용경험이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전북에 위치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무선표집하여 만 3~5세 유아가 스마트폰 사용 경험이 있는 어머니 300부를 배포하였다. 이 중 285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 및 중복응답을 제외하고 총 275부의 설문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ompliance	Content	N	%
Age	20s	87	31.6
	30s	143	52.0
	40s	45	16.4
Mother Academic	High school graduation	14	5.1
	College graduation	101	36.7
	University graduation	160	58.2
Occupation	Have	115	41.9
	Have not	160	58.2
Institution type	Kindergarten	114	41.5
	Daycare facility	161	58.6
Young children Age	3 years	93	33.8
	4 years	89	32.4
	5 years	93	33.8
Total		275	100.0

2.2 연구도구

2.2.1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을 알아보기 위해 [31]의 ‘성인 인터넷 중독 자기보고용 척도’를 [3]이 스마트폰 사용습관 과몰입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한 것을 활용하였다. [3]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유아교육 교수 3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구한 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구성은 크게 가상세계지향, 긍정적 기대, 내성 및 몰입, 스마트폰 자기인식 등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고, 4단계 평정척도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각각 .634, .730, .829, .849로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Sub-factors item number and reliability of mother’s smartphone usage habits

Sub-factors	Item number	Total	Cronbach α
Virtual world orientation	1.2.3.4	4	.634
Positive expectation	5.6.7.8	4	.730
Tolerance & flow	9.10.11.12	4	.829
Smartphone self-awareness	13.14.15.16	4	.849
Total	16		.918

2.2.2 유아의 공격성 검사도구

유아의 공격성 검사도구는 [32]가 사용한 도구를, 유아교수 3인의 내용타당도를 거친 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해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은 감정적 공격성, 위협행동 공격성, 지위획득 공격성, 파괴적 공격성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4점 평정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각의 신뢰도 계수는 .909, .691, .814, .854로 나타났으며, 이는 Table 3과 같다.

2.2.3 유아의 정서지능 검사도구

유아의 정서지능 검사를 위하여 [33]이 개발한 도구를 [34]가 재구성해 사용한 도구를 유아교수 3인의 내용타당도를 거친 후, 사용하였다. 총 50문항으로 자기정서의 이용,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 자기 정서의 인식 및 표현, 감정 조절 및 충동 억제, 어머니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등 6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있고, 5점 평정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음

을 의미한다. 또한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917, .943, .938, .757, .949, .937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Table 4와 같다.

Table 3. Sub-factors item number and reliability of young children’s aggression

Sub-factors	Item number	Total	Cronbach α
Emotional aggression	1,2,5,8, 10,11,20,21, 23,24	10	.909
Risk behavioral aggression	6,18	2	.691
Status acquired aggression	3,4,7,9, 22,25	6	.814
Destructive aggression	12,13,14,15,16, 17,19	7	.854
Total	25		.951

Table 4. Sub-factors item number and reliability of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Sub-factors	Item number	Total	Cronbach α
Usage of self-emotion	18*,19*,22,23,24,25,26, 27,28,29,30,31	12	.917
Other’s emotion awareness & caring	32,33,34,35,36,37,38, 39,44,48	10	.943
Self-emotion awareness & expression	1,2,3,4,5,6,7,8,9	9	.938
Emotion regulation & impulse control	11*,12*,13*,14*,15*, 16*,17*,20*,21	9	.757
Mother relation	10,40,41,42,43	5	.949
Peer relation	45,46,47,49,50	5	.937
Total	50		.976

* cross marking of questions

2.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 유아 공격성 및 정서지능에 대한 일반적 경향분석은 평균과 표준편차 값으로,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과 유아의 공격성 및 정서지능의 일반적 경향

3.1.1 어머니 스마트폰 사용습관의 일반적 경향

어머니 스마트폰 사용습관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General tendency of mother's smartphone usage habits

Sub-factors	M	SD
Virtual world orientation	1.23	.39
Positive expectation	1.36	.46
Tolerance & flow	1.57	.68
Smartphone self-awareness	1.43	.67
total	1.40	.51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의 일반적 경향에서는 전체적으로 $M=1.40(SD=.51)$ 으로 낮았으며, 하위요인별로는 내성 및 몰입($M=1.57, SD=.68$), 자기 인식($M=1.43, SD=.67$), 긍정적 기대($M=1.36, SD=.46$), 가상 세계지향($M=1.23, SD=.39$)순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에서는 내성 및 몰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상세계지향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3.1.2 유아 공격성의 일반적 경향

유아 공격성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General tendency of young children's aggression

Sub-factors	M	SD
Emotional	1.63	.56
Risk behavioral	1.47	.61
Status acquired	1.64	.57
Destructive	1.51	.52
Total	1.58	.51

유아 공격성의 일반적 경향은 전체적으로 $M=1.58(SD=.51)$ 로 낮게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지위획득 공격성($M=1.64, SD=.57$), 감정적 공격성($M=1.63, SD=.56$), 파괴적 공격성($M=1.51, SD=.52$), 위험행동 공격성($M=1.47, SD=.61$) 순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 공격

성에서는 지위획득 공격성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위험행동 공격성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3.1.3 유아 정서지능의 일반적 경향

유아 정서지능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General tendency of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Sub-factors	M	SD
Usage of self-emotion	3.26	.79
Other's emotion awareness & caring	3.28	.98
Self-emotion awareness & expression	3.55	1.13
Emotion regulation & impulse control	3.02	.63
Mother relation	3.63	1.39
Peer relation	3.45	1.12
Total	3.33	.83

유아 정서지능의 일반적 경향에서는 전체적으로 $M=3.33(SD=.83)$ 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어머니와의 관계($M=3.63, SD=1.39$), 자기정서 인식 및 표현($M=3.55, SD=1.13$), 또래와의 관계($M=3.45, SD=1.12$), 타인정서($M=3.26, SD=.79$), 자기정서($M=3.28, SD=.98$), 감정 조절($M=3.02, SD=.63$) 순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 정서지능에서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에 반해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3.2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과 유아의 공격성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과 유아의 공격성 및 정서지능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 전체와 유아 공격성 전체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6, p<.01$).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가상세계지향은 감정적 공격성($r=.51, p<.01$), 위험행동 공격성($r=.42, p<.01$), 지위획득 공격성($r=.46, p<.01$), 파괴적 공격성($r=.48, p<.01$)에, 긍정적 기대는 감정적 공격성($r=.53, p<.01$), 위험행동 공격성($r=.46, p<.01$), 지위획득 공격성($r=.48, p<.01$), 파괴적 공격성($r=.53, p<.01$)에, 내성 및 몰입은 감정적 공격성($r=.53, p<.01$), 위험행동 공격성($r=.36, p<.01$), 지위획득 공격성($r=.46, p<.01$), 파괴적 공격성($r=.44,$

Table 8. Relationship among mother's smartphone usage habits, young children's aggress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Virtual world orientation	1																
2. Positive expectation	.67**	1															
3. Tolerance & flow	.70**	.67**	1														
4. self-awareness	.64**	.57**	.76**	1													
5. Total	.80**	.77**	.90**	.93**	1												
6. Emotional	.51**	.53**	.53**	.44**	.55**	1											
7. Risk behavioral	.42**	.46**	.36**	.34**	.42**	.71**	1										
8. Status acquired	.46**	.48**	.46**	.38**	.48**	.80**	.57**	1									
9. Destructive	.48**	.53**	.44**	.42**	.51**	.84**	.70**	.68**	1								
10. Total	.53**	.56**	.52**	.45**	.56**	.97**	.76**	.87**	.91**	1							
11. Usage of self-emotion	-.06	-.02	-.05	-.02	-.04	-.06	-.07	-.05	-.04	-.06	1						
12. Other' emotion awareness & caring	-.07	.01	-.01	-.02	-.03	-.02	-.04	-.02	-.02	-.02	.84**	1					
13. Self-emotion awareness & expression	-.12*	-.09	-.10	-.03	-.08	-.08	-.07	-.04	-.07	-.07	.66**	.71**	1				
14. Emotion regulation & impulse control	-.05	-.04	-.04	.02	-.02	-.10	-.13*	-.03	-.08	-.09	.60**	.62**	.50**	1			
15. Mother relation	-.10	-.03	-.05	-.03	-.05	-.06	-.07	-.05	-.03	-.05	.78**	.89**	.81**	.53**	1		
16. Peer relation	-.07	-.01	.01	.01	-.06	-.05	-.03	-.03	-.04	-.05	.75**	.81**	.68**	.52**	.81**	1	
17. Total	-.09	-.04	-.05	-.02	-.05	-.07	-.08	-.04	-.05	-.06	.90**	.94**	.85**	.70**	.93**	.87**	1

p<.05, ** *p*<.01

p<.01)에, 자기인식은 감정적 공격성($r=.44, p<.01$), 위험행동 공격성($r=.34, p<.01$), 지위획득 공격성($r=.38, p<.01$), 파괴적 공격성($r=.42, p<.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 하위요인이 모두 높게 나타날수록 감정적 공격성, 위험행동 공격성, 지위획득 공격성, 파괴적 공격성 등 공격성의 모든 하위요인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 전체와 유아 정서지능 전체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05, p>.05$). 즉,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과 유아 정서지능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 중 가상세계지향과 정서지능 중 자기정서 인식 및 표현($r=-.12, p<.05$)은 부적상관 관계를 보여 어머니의 가상세계지향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정서 인식 및 표현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3.3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유아의 공격성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3.3.1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독립변수의 관련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VIF의 범위는 2.50~8.78

이다. 또한 Durbin-Watson을 살펴본 결과 1.96~2.18로 잔차에 상관관계 없이 회귀모형이 적합하며 서로 간의 독립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Table 9와 같다.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36.9%로 설명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39.519, p<.001$).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과 유아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가상세계지향($\beta=.186$)과 긍정적 기대($\beta=.292$)는 정적 예측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내성 및 몰입($\beta=.122$)은 유아 공격성에 유의하게 예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과 감정적 공격성에는 35%로 설명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F=36.3847, p<.001$), 위험행동 공격성에는 23.5%로 설명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0.777, p<.001$). 지위획득 공격성에는 27.2%로 설명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F=25.267, p<.001$), 파괴적 공격성에는 31.5%로 설명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31.065, p<.001$).

Table 9. Effect of mother's smartphone usage habits on young children's aggression

Subordination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t	df	R	R ²	R ² _{adj}	F
Emotional	(Constant)	.595	-	6.207***	4	.592	.350	.341	36.384***
	Virtual world orientation	.248	.174	2.090					
	Positive expectation	.289	.240	3.091**					
	Tolerance & flow	.179	.218	1.930*					
Risk behavioral	(Constant)	.260	-	4.464***	4	.485	.235	.224	20.777***
	Virtual world orientation	.260	.168	1.860					
	Positive expectation	.402	.308	3.658***					
	Tolerance & flow	-.067	.109	-.075					
Status acquired	(Constant)	.690	-	6.634***	4	.522	.272	.262	25.267***
	Virtual world orientation	.257	.175	1.987*					
	Positive expectation	.305	.246	2.998**					
	Tolerance & flow	.144	.171	1.431					
Destructive	(Constant)	.564	-	6.154***	4	.561	.315	.305	31.065***
	Virtual world orientation	.208	.156	1.826					
	Positive expectation	.352	.313	3.931***					
	Tolerance & flow	-.035	-.046	-.396					
Total	(Constant)	.602	-	7.038***	4	.608	.369	.360	39.519***
	Virtual world orientation	.240	.186	2.261*					
	Positive expectation	.319	.292	3.827***					
	Tolerance & flow	.091	.122	1.099					

* $p < .05$, ** $p < .01$, *** $p < .001$

3.3.2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유아의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853, p>.05$). 그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유아의 공격성과 정서지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함에 목적이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과 유아의 공격성 및 정서지능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의 일반적 경향은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하위요인별로는 ‘내성 및 몰입’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유아 공격성의 일반적 경향에서도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고, 하위요인별로는 ‘지위획득 공격성’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유아 정서지능의 일반적 경향에서는 대체로 보통수준의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 경기도 소재 부모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을 조사한 [30]의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내성 및 몰입관련 사용습관이 가장 높음을 밝힌 것과 유아의 지위획득 공격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을 밝힌 [35]의 연구, 유아 정서지능 중 어머니와의 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살핀 [3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 중 내성 및 몰입현상은 비단, 어머니들만의 사용습관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이 유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어머니들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무언지교(無言之教)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유아는 어머니의 말없는 가르침인 행동을 보며 자신의 생활습관 형성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어머니의 잘못된 스마트폰 사용습관은 유아의 모델링이 되어,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는 어머니들의 스마트폰 사용습관관련 인식의 개선을 위한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둘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과 유아의 공격성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 전체와 유아 공격성 전체는 정적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 하위요인인 가장

Table 10. Effect of mother’s smartphone usage habits on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Subordination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t	df	R	R ²	R ² _{adj}	F
Usage of self-emotion	(Constant)	3.391		20.099***					
	Virtual world orientation	-.161	-.079	-.847					
	Positive expectation	.070	.041	.461	4	.076	.006	-.009	.390
	Tolerance & flow	-.070	-.060	-.555					
	Self-awareness	.060	.051	.531					
Other's emotion awareness & caring	(Constant)	3.433		16.618***					
	Virtual world orientation	-.407	-.163	-1.743					
	Positive expectation	.189	.090	1.010	4	.111	.012	-.002	.843
	Tolerance & flow	.069	.048	.446					
	Self-awareness	-.010	-.007	-.070					
Self-emotion awareness & expression	(Constant)	3.973		16.707***					
	Virtual world orientation	-.353	-.122	-1.313					
	Positive expectation	-.011	-.005	-.053	4	.153	.023	.009	1.622
	Tolerance & flow	-.207	.179	-1.158					
	Self-awareness	.247	.146	1.551					
Emotion regulation & impulse control	(Constant)	3.113		23.420***					
	Virtual world orientation	-.165	-.102	-.992					
	Positive expectation	-.062	-.045	-.475	4	.097	.009	-.005	.646
	Tolerance & flow	-.151	-.163	-1.170					
	(Constant)	3.992		13.584***					
Mother relation	Virtual world orientation	-.588	-.166	-1.773					
	Positive expectation	.182	.061	.686	4	.119	.014	.000	.966
	Tolerance & flow	-.033	-.016	-.148					
	Self-awareness	.113	.055	.575					
	(Constant)	3.658		15.441***					
Peer relation	Virtual world orientation	-.499	-.174	-1.863					
	Positive expectation	.074	.031	.808	4	.116	.013	-.001	.913
	Tolerance & flow	.144	.087	.808					
	Self-awareness	.059	.035	.371					
	(Constant)	3.541		20.086***					
Total	Virtual world orientation	-.311	-.146	-1.561					
	Positive expectation	.078	-.146	-1.561	4	.112	.012	-.002	.853
	Tolerance & flow	-.045	-.037	-.343					
	Self-awareness	.096	.077	.813					

p > .05

세계지향, 긍정적 기대, 내성 및 몰입, 자기 인식 등 모든 사용습관이 감정적 공격성, 위협행동 공격성, 지위획득 공격성, 파괴적 공격성 등 모든 유아의 공격성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 전체와 하위요인 사용습관이 높아질수록 유아의 공격성 전체와 하위요인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유아의 공격성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 중의 하나로 가정환경, 부모의 양육태도 및 행동 등을 들고 있는 [36]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과 유아의 공격성간의 관계를 밝힌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결과로,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 개선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내용을 담

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편,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 전체와 유아 정서지능 전체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용습관 중 가상세계지향과 정서지능 중 자기정서 인식 및 표현은 부적상관관계를 보여 어머니의 가상세계지향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정서 인식 및 표현이 낮아짐을 살필 수 있었다. 가상세계지향관련 스마트폰 사용습관으로 인해 유아의 자기정서 인식 및 표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스마트폰으로 인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몰입하여 사용하면 자녀와의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이로 인해 자녀는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인식과 표현에

어려움을 갖게 될 것이라 추측된다.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함은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본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며, 또래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상황에 알맞은 정서 표현은 친구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매개역할을 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37], 유아의 자기정서 인식 및 표현은 중요한 정서지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어머니들의 가상세계지향 등 잘못된 스마트폰 사용습관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 전체는 유아의 공격성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도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 전체는 감정적 공격성, 파괴적 공격성, 지위 획득 공격성, 위협행동 공격성 등 모든 공격성 하위요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 하위요인을 살펴본 결과, 가상세계지향과 긍정적 기대가 공격성과 정적예측관계를 나타내어, 이 두요소가 유아의 공격성을 상승시키는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높으면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함을 밝힌 [37]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어머니의 바람직하지 못한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유아의 공격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됨을 밝힌 본 연구결과는 부모들의 부적절한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유아의 생활에 위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어머니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초자료가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 판단된다.

넷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은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과 유아의 정서지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밝힌 [3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결국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과 유아의 정서지능과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아의 전인적 인간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어머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폰 사용습관은 자녀와의 상호 작용이나 자녀요구에 대한 적절한 감정수용 및 반응 등

에서 원활하지 못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 유아의 정서지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에,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과 유아의 정서지능간의 인과관계 증명은 이후에도 후속연구들이 이어질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유아의 공격성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에 있었다. 연구결과,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과 공격성과의 정적상관관계 및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었으며,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 중 가상세계지향과 유아의 정서지능 중 자기정서 인식 및 표현간에도 부적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과 유아 공격성을 매개할 수 있는 변인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어머니들의 부적절한 스마트폰 사용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관련 개발 및 효과검증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안한다.

References

- [1] Klaus, K. 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ew York: Crown Business, 2016.
- [2] S. R. Hyun, "The effect of children's smart devices usage on their aggress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Chung 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6.
- [3] E. M.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martphone usage habits of children and mothers and the attention concentration and self-control", Kyung Hee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4.
- [4] S. A. Yang, O, S, Kwon, "The fatal temptation, babysitter smartphone", <http://www.hani.co.kr/arti/society> (accessed Dec, 12, 2013).
- [5] J. R. Lee. "Situation and reporting the smart phone exposure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Seoul: Child Care and Research Institute, 2014.
- [6] J. H. Kim, "Smartphone Syndrome prevention for infants and children",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accessed March, 12, 2016).
- [7] H. J. Lee, "Smartphone overuse and problem behaviors of preschoolers, and parenting efficacy of their mothers", Seou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4.
- [8] S. O. Kim, H. S. Kim, K. O, Lee, "Developing Internet Game Addiction Scale for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8(6), 37-52, 2014.
- [9] M. J. Lee, "Utilization of smart devices in young children for developmental impact on the mother's percep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13.

- [10] S. H. Huh, Y. S. Shin, "Computer game addiction of young children based on brain research",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ceedings of Symposium, 386-387, 2010.
- [11] C. Y. Cho, "Mediating and Moderating the effects of child's verbalability,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 between maternal parenting attitude and child's aggression", Puk Yong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4.
- [12] J. J. Lee, "Study on the zen-activity program for improvement of attention of young children", Young 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6.
- [13] Crick, N. R.,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5), 2317-2327, 1996.
DOI: <https://doi.org/10.2307/1131625>
- [14] S. H. Lee, "How violent behavior in infants is connected to their parents use of smart utilities", Ul Sa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4.
- [15] J. Y.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parenting attitude and young children's aggression", Soong Si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3.
- [16] S. B. Lee, "Variables that influence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of preschool children", Catholic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11.
- [17] J. Y. Choi, M. A. Kim, "The Effects of Temperament and Parenting Attitude on Child's Aggressio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7(4), 119-137, 2010.
- [18] H. S. Kim, "The effects of infants' smartphone use characteristics on their emotional regulation, agg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Kun Sa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5.
- [19] S. R. Hyun, "Effect of children's smart devices usage on their aggress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Chung 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6.
- [20] J. E.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five-year-ol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preschool adjustmen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03.
- [21] Y. Kim, T. S. Han, H. J. Hwang, "A study on the relativ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cognitive ability and temperament on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pre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4(6), 277-299, 2004.
- [22] M. Y. Sung, "Children's emotionality and behavior problems depending on their institutionalizatio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5(1), 17-29, 2006.
- [23] Salovey, P., Mayer, J. D., "Perceiving the affective content in ambiguous visual stimuli: a compon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772-781, 1990.
DOI: <https://doi.org/10.1080/00223891.1990.9674037>
- [24] P. J. Jeon, "Parents to help the young children's emotional development", *New Family*, 348(4), 80-83, 1985.
- [25] S. S. Le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ddiction in computer game and emotional traits of adolescent", Seoul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0.
- [26] K. S. Park, "The effect of using smart devices on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Kang 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3.
- [27] J. H. Kim, S. J. Oh, "The effect of children's smartphone usage habits and self-control on children's sociality",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6(4), 67-91, 2016.
- [28] E. J. Yoo,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endency of addiction of smartphone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In Cheo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3.
- [29] Bronfenbrenner, U.,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 [30] J. E. Park, "The effect of smartphone usage habits of young children and mothers on creative personality traits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young children", Ga Cho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4.
- [31] Korea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and Promotion, "*Survey of addicted to internet*", Seoul: Korea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and Promotion, 2006.
- [32] H. B. Park. "Types of preschool children's aggression and parents, teachers, & peer relationship", Chung Buk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03.
- [33] K. H. Kim,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sychological life position and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on Bu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9.
- [34] Y. S. Kim, Y. J. Kang, Y. H. Lee, J. E. Yoo, "The relationship with parent discipline style,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bility",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ceedings of Symposium, 137-155, 2014.
- [35] S. J. Kim, I. J. Jung, "The effect of media use(computers, video games, and smartphones) on the depression/anxiety and aggression of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20(2), 157-176, 2016.
- [36] Crnic, K. A., Gaze, C., Hoffman, C. A., "Cumulative parenting stress across the ativchool period: relations to maternal parenting and ill behavior",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 117-132, 2005.
DOI: <https://doi.org/10.1002/icd.384>
- [37] K. H. Kim, "Developm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rating scale for preschool children", Yon Sei University Doctoral Thesis, 1998.

유 지 은(Ji-Eun Yoo)

[정회원]



- 2006년 2월 :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0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07년 3월 ~ 2015년 2월 : 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및 교육대학원 외래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서울한영대학교 아동학과 초빙교수

<관심분야>

교수-학습방법, 유아수학교육, 아동건강교육, 영유아발달

김 성 재(Sung-Jae Kim)

[정회원]



- 2013년 8월 :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교육학석사)
- 2002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대학원 (교육학석사)
- 2007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문학박사)
- 2009년 9월 ~ 현재 :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유아 숲 교육, 체육교육

황 지 애(Ji-Ae Hwang)

[정회원]



- 2008년 8월 :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교육학석사)
- 2015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1년 3월 ~ 2013년 2월 : 순천제일대학교 EDL센터 연구원
- 2015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의전담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